

대순진리회와 유가의 해원, 보은, 상생관에 대한 비교연구*

양즈루(楊子路)**

서남대학 정치와 공공관리학원 종교연구소 · 강사

- I.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과 ‘보은상생’ 사상 III. 결론
II. 유가의 ‘해원’, ‘보은’ 및 ‘생’에 관한 관념

해원, 보은, 상생은 한국 대순진리회의 핵심 교의(教義)일 뿐만 아니라, 또 중국유가학파가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대순진리회 기본 교전(教典)과 중국 선진시기(先秦時期) 유가 경전문헌을 근거로 삼아, 대순진리회와 유가의 해원, 보은과 상생 사상을 구분하여 논술해 보았다. 또한 양자(兩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한중문화(韓中文化)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I.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과 ‘보은상생’ 사상

* 이 연구는 중국 서남대학 기초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SWU1409326).
** 중국 서남대학 정치와 공공관리학원 종교연구소 강사. 철학박사.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E-mail: aayzl@foxmail.com.

일반적으로 어느 한 종교의 창시자가 선포한 교의(敎義)는 그 신도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진리에 속한다. 대순진리회의 진리는 강증산 성사(姜甌山 聖師)[그는 구천대원조화주신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인신(人身) 성사이시다.]께서 선포한 교의이다. 강증산 성사 이후, 도주 조정산(趙鼎山)과 도전 박한경(朴漢慶)에 의해 종통(宗統)이 계승되었다. 먼저 도주 조정산께서 종단 무극도(無極道)를 창설하였고, 이후 도전 박한경께서 종단기구를 개편하시고 종단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를 창설하였다. 이렇게 하여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의 성스러운 말씀을 근본으로 한 단체가 ‘대순진리회’라는 명칭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주된 진리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이다. 『대순지침』 중의 “대순진리의 신앙을 바르게 깨쳐 나가도록 교화하라.”는 항목에서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대 진리가 마음에 배고 몸으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¹⁾라 하였다. 또한 『대순진리회요람』의 ‘취지’에서 이르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하고 성지우성하여 도즉아 아즉도의 경지를 정각하고…”²⁾라고 하였다.

사람의 본질은 사회성에 있으므로, 개개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과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일정한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행위를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판단을 하게 된다. 이는 즉, ‘나에게 좋은 일이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나에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이다’를 말한다. 이를 좀 더 깊이 탐구해 보면,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주로 ‘나에게 좋은 일이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의 두 가지 상황으로 귀결(歸結)됨을 알 수 있다.

토론의 편리를 위해 문제를 정리하자면, 사람간의 관계에서는 일반

1)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대순지침』,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4. 이하의 인용은 모두 본 『대순지침』에 근거한다.

2)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대순진리회요람』,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5. 이하의 인용은 모두 본 『대순진리회요람』에 근거한다.

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의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는 내가 어떤 일에 ‘원망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 볼 때, 대인관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해원’과 ‘보은’이다.

1. 대순진리회의 ‘해원’론

『대순지침』의 “해원(解冤)은 척(慝)을 푸는 일이며...”³⁾라는 말은 ‘내’가 주도적으로 원을 풀어야 함을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지침』에서는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곧 척을 맺는 주체이자 척을 푸는 주체이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척을 풀어야만 다른 한 쪽도 비로소 척을 풀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만일 상대방이 ‘나’에 대한 원한을 풀었지만, ‘내’가 척을 풀지 않는다면, 그 척은 풀리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척을 맺고, 척을 푸는 주체인 ‘내’가 먼저 척을 풀어야만 비로소 해원 할 수 있다.

2. 대순진리회의 ‘보은’론

일반적으로 ‘은(恩)’이라는 것은 곧 주변사람이 베풀어준 은혜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 보면, 천지가 부여한 생명, ‘복(福)’과 ‘녹(祿)’, 국가와 사회가 부여한 태평(太平)과 안거(安居), 부모가 양육한 은혜와

3) 『대순지침』, p.11.

4) 같은 책.

스승의 가르침 등도 이에 포함한다. 『대순진리회요람』에 기록된 훈회에서는 “은혜라 함은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요, 저버림이라 함은 잊고 배반함이니, 은혜를 받거든 반드시 갚아야 한다. 생(生)과 수명(壽命)과 복록(福祿)은 천지의 은혜이니 성·경·신으로써 천지 보은의 대의(大義)를 세워 인도(人道)를 다하고, 보명(保命)과 안주(安住)는 국가 사회의 은혜이니 헌신 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하며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崇先) 보본(報本)의 대의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教導) 육성(育成)은 스승의 은혜이니 봉교(奉教) 포덕(布德)으로써 제도를 다하고, 생활과 녹작(祿爵)은 직업의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써 직분을 다하라.”⁵⁾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은(報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사람, 천지, 국가와 사회, 스승, 직업 등을 통해 자신이 받는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이에 상응하는 은덕(恩德)으로써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보답하고, ‘성경신(誠敬信)’으로써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며, “헌신(獻身) 봉사(奉仕)를 다하는 충성심”으로 국가와 사회의 은혜에 보답하고, “효도를 다함”으로써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며, “봉교(奉教)와 포덕(布德)으로 도를 전함”으로써 스승에게 보답하고, “충실과 근면으로 직분을 다함”으로써 직업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3. 대순진리회의 ‘상생’론

‘상생’이란 곧 ‘남을 잘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지침』에서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은 ‘남에게 착을 짓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진리”⁶⁾이며,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⁷⁾라 하였다.

5) 『대순진리회요람』, pp.17-18.

6) 『대순지침』, p.12.

7) 같은 책, p.21.

“남을 잘되게 하라(誠利人).” 중의 ‘성(誠)’은 ‘진성(眞誠)’을 가리키고, “남을 잘되게 하라.”는 곧 타인에게 좋은 것을 주어 이로움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 분업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단체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어야만 하며, 이로써 단체 및 단체의 각 구성원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원리요 구제창생(救濟蒼生)의 근본이념이라.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성사에는 타인과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정신을 가져 협동생활에 일치 협력이 되게 하라.”⁸⁾라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상생’은 ‘해원’과 ‘보은’의 주된 귀결점이고, ‘해원’과 ‘보은’의 주된 목적은 ‘상생’에 도달하는 것이다. 착을 풀기만 하면 주체(主體)와 주변사람에게 원한이 없게 되는데, 이 때 원한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을 잘되게 함’으로써 ‘상생’에 도달하는 것이다. 소위 “양쪽이 모두 착이 풀려야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⁹⁾

‘보은’의 객관적인 효과는 바로 ‘상생’인데, 보은의 시작은 진심으로 감사하여 내가 받은 이로움을 상대에게 갚아주는 것이므로 피동(被動)적이다. 그러나 ‘상생’의 시작은 상대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므로 능동(能動)적이다. 이는 ‘보은’과 ‘상생’의 차이점이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은 양자의 공통점이다. 이 외에도 ‘보은’은 ‘상생’에 비해 그 범위가 좀 더 넓다. 왜냐하면 ‘보은’의 대상은 생활 속의 사람을 포함할 뿐 아니라, 국가, 사회, 천지, 직업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생’의 의미를 확대해 보면, 국가, 사회, 천지, 직업과 생활 속의 타자를 포함한다. 또한 ‘상생’이 추구하는 목적은 ‘화민정세(化民靖世)’, ‘광구천하(匡救天下)’, ‘광제창생(廣濟蒼生)’¹⁰⁾

8) 『대순진리회요람』, p.18.

9) 『대순지침』, pp.11-12.

10) 같은 책, p.7.

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생’은 천하(天下)에 상극이 없는 조화로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생과 연관하여 대순진리회의 성사께서 대순하신 진리의 의미는 아래와 같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 대도(大道)의 진리로서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이법(理法)으로 해원을 위주로 하여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보은으로 종결하시니 해원 보은 양 원리인 도리(道理)로 만고(萬古)에 쌓였던 모든 원울(冤鬱)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相克)이 없는 도화낙원(道化樂園)”¹¹⁾이 된다.

대순진리회의 중지는 바로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¹²⁾이다.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¹³⁾인데, ‘뇌성(雷聲)’은 곧 ‘음양합덕’으로 해석되며, 만물을 생장(生長)시킨다는 뜻이 있다.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뇌성(雷聲)이라 함은 천령(天令)이며 인성(仁聲)인 것이다. 뇌는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결합으로써 성뢰(成雷)된다. 뇌(雷)는 성(聲)의 체(體)요, 성은 뇌의 용(用)으로서 천지를 나누고 동정진퇴(動靜進退)의 변화로 천기와 지기를 승강(昇降)케 하며 만물을 생장하게 하고 생성변화 지배자양(支配滋養)함을 뜻함”¹⁴⁾이라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사상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화롭게 하는 윤리규범이다. ‘해원’과 ‘보은’의 두 가지 처세방식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시에 ‘해원’과 ‘보은’의 처세방식은 ‘상생’을 지향하고 있다. ‘상생’은 곧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고, 천하에 상극이 없고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함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곧 “화민정세(化民靖世)하시어 인세(人世)에 낙원을 이룩한다 하심은 광구천하(匡救天下)·광제창생(廣濟蒼生)의 대의(大義)이다.”¹⁵⁾라는 내용과 같다.

11) 『대순진리회요람』, p.4.

12) 같은 책, p.11.

13) 같은 책, p.2.

14) 같은 책, p.3.

15) 『대순지침』, p.7.

II. 유가의 ‘해원’, ‘보은’ 및 ‘생’에 관한 관념

1. 유가의 ‘해원’에 관한 사상

유가에서 보면, ‘원(冤·怨)’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과하여 초래되는 것이다. 그 본질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억울함’과 ‘원한’으로 표현된다. 유가학설의 핵심은 ‘인(仁)’이며 ‘인자애인(仁者愛人)’을 강조하므로 군자는 마땅히 ‘원(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부합되는 공자의 말 중에 “이익에 의해 행동하면 많은 원한이 생긴다.”¹⁶⁾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논어(論語)』의 「이인(里仁)」편에 나오는 말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면 다른 사람의 원한을 쉽게 야기시킨다는 뜻이다. 또한 『논어』의 「헌문(憲問)」편에서는 “하늘에 원을 품지 않고 사람을 탓함이 없이 배움에 힘써 이치에 통한다.”¹⁷⁾라 하였다. 이는 하늘과 타인에 대한 원한을 해소하고, 관련 있는 사회지식을 배워야만, 비로소 점차적으로 천도(天道)에 통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논어』의 「위령공(衛靈公)」편에서는 “자신을 강하게 질책하고 남을 쉬이 책하지 않으면 원망을 멀리하게 된다.”¹⁸⁾라 하였다. 또한 『맹자(孟子)』의 「이루하(離婁下)」편에서는 “군자는 누군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 필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분명 어질지 못하고 예가 없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라 생각하며 자신을 반성한다. 만약 스스로를 돌이켜보아 인(仁)을 다하고 예를 지켰음에도 상대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군자는 또 필히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분명 진실하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반성하여

16) 『論語』, 「里仁」, “放於利而行, 多怨.”

17) 같은 책, 「憲問」,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

18) 같은 책, 「衛靈公」, “躬自厚薄責於人, 則遠怨矣.”

충심을 다하였는데도 상대가 여전히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면...”¹⁹⁾이라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유가에서는 주로 자아반성과 충서지도(忠恕之道)라는 무형(無形)의 방식을 통해 상대의 무리한 처사에 대한 원망과 원한 등을 풀어 나감을 알 수 있다.

논어의 ‘충서지도’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볼 때, “자신이 일어서고자 하면 남도 일어서게 하고, 자신이 이치에 통하기를 원하면 남도 이치에 통하게 하라.”²⁰⁾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비교하여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²¹⁾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곧 자신의 지혜와 양심을 판단의 표준으로 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도 이루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개의치 않아야 하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사람의 심리’는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생각하고 일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인정(認定)과 호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는 “출행하여서는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올리듯이 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국가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집안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²²⁾라 하였다.

만약 원한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유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직으로써 원한을 갚는다(以直報怨)’는 방식으로 원한에 대응한다. ‘이직보

19) 『孟子』, 「離婁下」, “有人於此, 其待我以橫逆, 則君子必自反也, 我必不仁也, 必無禮也, 此物奚直至哉? 其自反而仁矣, 自反而有禮矣, 其橫逆由是也, 君子必自反也, 我必不忠, 自反而忠矣, 其橫逆由是也.”

20) 『論語』, 「雍也」,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21) 같은 책, 「顏淵」, “己所不欲, 勿施于人.”

22) 같은 책, 「顏淵」,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于人. 在邦無怨, 在家無怨.”

원(以直報怨)’은 바로 자신의 본심과 특히 국가법규, 사회의 일반적인 예법에 의거해서 원한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신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 따라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덕으로써 원을 갚는 것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덕으로써 갚을 것인가? 정직함으로 원망을 갚아야 할 것이며 덕으로써 덕을 갚아야 할 것이다.”²³⁾라고 하였다. 공자는 또 “듣기 좋은 말과 화사한 낫빛으로 지나치게 공손히 행동함을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도 역시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원망스러움을 숨기고 그 사람과 벗함을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도 역시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²⁴⁾라고 하였다. 이를 볼 때, 공자는 결코 악인과 악행을 원칙 없이 용서해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유가는 사회윤리를 기본으로 하는 학파이며, 국가정책과 민생에 관심을 두고, 백성의 원한 문제를 지극히 중시한다. 공자는 “우하의 도는 백성들이 원망함이 적었는데, 은주의 도는 그 폐해가 말할 수 없이 컸다.”²⁵⁾라 하였다. 백성의 원한이 많고 적음은 정권이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민중의 원한을 풀고, 사회의 화목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2. 유가의 ‘보은’에 관한 사상

‘은(恩)’은 곧 은혜이고, 보은(報恩)은 곧 남이 베풀어 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유가에서는 ‘은혜를 알고 보답하고자 하는(知恩圖報)’

23) 같은 책, 「憲問」,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24) 같은 책, 「公治長」, “巧言, 令色, 足恭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25) 『禮記』, 「表記」, “虞夏之道寡怨於民, 殷周之道不勝其敝.”

덕행을 지극히 중시하며 ‘은혜를 잊고 의를 저버리는 것(背恩負義)’을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의 하나로 본다.

유가적 관점에서 보면, 천(天)·지(地)·군(君)[혹은 국가(國家)]·친(親)·사(師)는 우리들이 본래 감사하고 보은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왜냐하면 천지는 만물과 인류를 낳아 기르는 근본으로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존환경과 조건을 제공하였고, 조상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으며, 국가는 다스림의 근본으로서 우리에게 안정된 삶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었고, 스승은 교육의 근본으로서 우리에게 인·의·예·지를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모두는 우리가 감사하고 보은해야 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순자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예는 세 가지 근본을 갖고 있으니 천지는 생명의 근본이며, 조상은 종족의 근본이고, 임금의 다스림의 근본이 된다. 천지가 없이 어찌 생명이 있겠는가? 조상이 없이 어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가? 임금이 없이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부족하여도 편히 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갖추어 있어 위로는 하늘을 받들고 아래로는 땅을 섬겨야 하며 조상을 공경하고 임금을 높이고 존중해야 하니, 이것이 곧 예가 지닌 세 가지 근본이다.”²⁶⁾

비록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보은해야 할 대상이지만, ‘군신’과 ‘부자’의 관계를 예로 들면, 신하와 자식은 결코 조건 없이 임금과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이에 공자는 “임금은 신하를 부림에 있어 예로써 해야 하고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²⁷⁾라 하였고, 맹자는 “임금이 신하를 수족으로 여기면 신하는 임금을 배와 심장처럼 여기고, 임금이 신하를 개와 말처럼 대하면 신하가 임금을 범부

26) 『荀子』, 「禮論」, “禮有三本, 天地者, 生之本也; 先祖者, 類之本也; 君師者, 治之本也. 無天地, 惡生? 無先祖, 惡出? 無君師, 惡治? 三者? 亡, 焉無安人. 故禮, 上事天, 下事地, 尊先祖而隆君師, 是禮之三本也.”

27) 『論語』, 「八佾」,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로 여기며, 임금의 신하를 흠과 풀을 보듯이 하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여기게 된다.”²⁸⁾라고 하였다. ‘아버지를 따르는’ 문제에 있어 공자와 맹자는 마땅히 부친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공자는 “삼 년 간 아버지의 도를 거스르지 않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²⁹⁾라 하였는데, 『맹자』 「진심상(盡心上)」에서 말한 ‘고수살인(瞽瞍殺人)’의 예도 이와 같다.

이와 비교하여 순자는 “도리를 따르나 임금을 쫓지 않으며, 의를 따르나 아버지를 쫓지 않는다.”³⁰⁾라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의 핵심인 ‘노인을 봉양함(養老)’, ‘장례를 치름(送終)’의 관점에 있어서는 선진유가(先秦儒家) 종사(宗師)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노인들의 생존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인을 존경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노인의 마음이 흡족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며, 돌아가신 후에, 예의(禮儀)에 맞는 상례와 제사를 치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형제’, ‘부부’ 및 ‘친구’간의 인륜관계에 대해서 유가는 ‘인(仁)’, ‘의(義)’, ‘예(禮)’에 기초해서 서로 정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괄적으로 말해, ‘형제’간에 ‘제(悌)’해야 한다는 것은 형제간에 서로 친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고, ‘부부’간에 ‘경(敬)’해야 한다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며, ‘친구’간에 ‘신(信)’해야 한다는 것은 친구 간에 서로 신뢰하고 가까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호간의 존경과 친밀함(尊敬相親), 공경과 사랑(敬重親愛), 신뢰 촉진(信任促進)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천(天)·지(地)·군(君)·친(親)·사(師)’와 비교하여 보은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은을 강조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8) 『孟子』, 「離婁下」,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仇.”

29) 『論語』, 「學而」, “三年無改于父之道, 可謂孝矣.”

30) 『荀子』, 「子道」, “從道不從君, 從義不從父.”

3. 유가의 ‘생’에 관한 사상

『좌전(左傳)』에서는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天道遠, 人道邇).”라 하였다. 하지만 『논어』의 기록에 의하면, 자공도 일찍이 “공자께서 성과 천도에 대해 말씀을 들은 바가 없다.”³¹⁾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유가에서는 ‘인(仁)’, ‘의(義)’, ‘예(禮)’ 등의 사상적 측면에 있어서 ‘천도(天道)’와 ‘생(生)’의 궁극적인 면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여 추상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공자는 일찍이 “오십에 이르러 천명을 알았다.”³²⁾라 하였고, 또 “명을 모르면 군자가 되지 못한다.”³³⁾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므로 두려워함이 없다.”³⁴⁾가 된다. 그렇다면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인’인데, 이는 군자가 ‘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늘의 ‘인’은 구체적으로 ‘생(生)’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해 공자는, “하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사시가 운행되고 만물이 성장함에 하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³⁵⁾라 하였다.

백서(帛書)의 「요(要)」에서는 “공자가 말년에 이르러서는 『역』을 좋아하여 머무를 때는 늘 가까이 두었으며 출행 시에는 주머니에 넣었다.”³⁶⁾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공자가 말년에 『역』을 즐겨 읽어서 “위편삼절(韋編三絕)”하였다는 『사기(史記)』의 기록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자는 『역경(易經)』을 그토록 깊이 연구하여 무엇을 얻었던 것일까? 실제로 공자는 『역경』속에서 “천도(天道)와 사람이 통할

31) 『論語』, 「公治長」,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32) 같은 책, 「爲政」, “五十而知天命.”

33) 같은 책, 「堯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34) 小人不知天命而不畏也.

35) 『論語』, 「陽貨」,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

36) [日]池田知久, 『帛書「要」釋文』, 載劉大鈞主編, 『出土易學文獻4』(上海: 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0), p.1546, “夫子老而好『易』, 居則在席, 行則在囊.”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³⁷⁾ 이러한 방법의 중요한 내용은 곧 ‘천인합덕(天人合德)’이니, 이는 곧 ‘인’과 ‘생’을 가리킨다.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서는 “천지의 큰 덕을 일컬어 생이라 한다(天地之大德曰生).”, “생하고 생하는 것을 일컬어 역이라 한다(生生之謂易).”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공자 혹은 그 후학자들의 사상을 반영(反映)하고 있다.

공자 이후에 『중용(中庸)』에서는 또 “오직 천하에 지극히 진실해야만 그 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니, 성을 다한다는 것은 사람이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고,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물건이 정성을 다할 것이며, 물건이 정성을 다하면, 천지의 화육을 돕게 되고, 천지의 화육을 도우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게 된다.”³⁸⁾라 하였다. ‘천지화육(天地化育)에 참여하여 돕는다’라는 관념은 곧 공자의 ‘생(生)’에 관한 사상이 발전된 것이다.

맹자와 순자는 모두 ‘생(生)’으로써, ‘인(仁)’, ‘의(義)’, ‘예(禮)’ 등과 유가에서 백성을 ‘기르고 교육하는(生育)’하는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맹자는 비록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좇음(捨生取義)’를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백성을 기르고 교육하는 이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또 그는 “살아있는 자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장사 지냄에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곧 덕치의 시작이다.”³⁹⁾라 하였다. 순자는 또 말할지, “정성스럽고 허점이 없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 합당하며, 삶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일컬어 하늘의 뜻을 안다고 말한다.”⁴⁰⁾라 하였다. 이로써 ‘생(生)’이 유가이론의 기본정신이며, 또한 유가가 추구하는 실천 목표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37) 趙法生, 「孔子「晚而喜易」與其晚年思想的變化」, 『哲學研究』(北京: 哲學研究雜誌編輯部, 2012年第2期), pp.39-46.

38) 『中庸』,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 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

39) 『孟子』, 「梁惠王上」,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40) 『荀子』, 「天論」, “其行曲治, 其養曲適, 其生不傷, 夫是之謂知天.”

Ⅲ. 결론

위에서 말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대순진리회가 ‘상생’이라는 핵심 사상을 기초로 하여, ‘해원’과 ‘보은’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천여 년 전 공자, 맹자 등 유가의 사상가들도 ‘생(生)’과 ‘인(仁)’을 핵심사상으로 하여 ‘의(義)’와 ‘예(禮)’ 등 ‘스스로를 닦고 세상을 다스리는(修身治世)’ 방법에 대해 말하였다. 이들은 군자는 마땅히 만물을 낳아 기르는 큰 덕(大德)을 갖추어야 하며, 인류를 사랑하는 기본 품성을 갖추어야 하고, 어질고 의로운 덕을 갖추고 원한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고 보은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순진리회와 유가의 공통된 정신이기도 하다.

‘해원’과 ‘보은’을 구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유가는 지역적,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그에 합당한 예법(禮法)을 실행했는데, 이를 행하는데 있어 정치적 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에서는 전문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정신적 인도자로 삼아서 대중이 그 진리에 의거하여 생활하도록 지도하는데, 이는 종교 조직체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외에도 대순진리회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주된 처세 윤리로 삼아, 시대의 병폐에 대처하고 있는데,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이라는 말은 간결하여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뜻을 두루 갖추고 있다. ‘생’에 대한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대순진리회는 강증산 성사께서 내려주신 가르침을 진리로 삼고 있으며 이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데, 이로써 종교의 신성성과 초월성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유가에서는 추상적인 ‘천도(天道)’를 궁극의 근거로 삼아, ‘천도’의 성품인 ‘생’에 따라 일을 행하며, 이성을 더욱 중시함으로써 신앙적인 측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大巡真理会与儒家解冤报恩相生观的 比较研究*

杨子路**

西南大学政治与公共管理学院宗教研究所·讲师

- 一、大巡真理会“解冤相生”与“报恩相生”思想
二、儒家的“解冤”、“报恩”及“生”的观念
三、结语

解冤、报恩、相生既是韩国大巡真理会的核心教义，也是中国儒家学派关注的重要问题。本论文主要以韩国大巡真理会基本教典和中国先秦时期儒家经典文献为依据，试分别阐述大巡真理会与儒家的解冤、报恩和相生思想，并比较两者同异，以增进中韩文化的相互了解。

一、大巡真理会“解冤相生”与“报恩相生”思想

一般来说，某一宗教祖师所宣的教义对其信徒来说都属真理，大巡真理

* Supported by “the Fundamental Research Funds for the Central Universities” (SWU1409326) in China.

** 哲学博士，现西南大学政治与公共管理学院宗教研究所·讲师。发表学术论文多篇。
E-mail: aayzl@foxmail.com

会之真理是圣师姜甌山(他是九天大元造化主神之圣师降世的肉身圣师)所宣的教义。其后, 又由道主赵鼎山、都典朴汉庆继承宗统。先有道主赵鼎山创立宗团无极道, 后都典朴汉庆改编宗团机构, 创设宗团大巡真理会。这样以宣说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姜圣上帝圣言的组织便直接以“大巡真理会”的名称显世了。

大巡真理会所宣说的主要真理为: “解冤相生”、“报恩相生”。在『大巡指针』的“为正确理解大巡真理之信仰加以教化”的一栏中称: “使解冤相生、报恩相生此两大真理深入人心, 身体力行”¹⁾。在『大巡真理会要览』“旨趣”一章中称: “以此对阴阳合德、神人调化、解冤相生、道通真境之大巡真理加以勉修、诚之又诚, 达能够正觉道即我、我即道之境界”²⁾。

人的本质在于其社会性, 人必然要同身边的人发生关系。在一定的社会关系中, 以自我作为行动的出发点, 必然会形成如下三种判断: 对我“好”, 对我“不好”以及对我“不好不坏”。而就对我“不好不坏”这种情况来说, 如果深入探究, 其实际情形往往又容易流入对我“好”或“不好”这两种境况。所以, 为讨论方便起见, 人与他人发生关系, 一般具有两种不同性质的情况, 即对我“好”和“不好”。对我“好”, 即对我“有恩”; 对我“不好”, 即我对其“有冤”。所以, 处理人际关系的基本途径, 即是“解冤”和“报恩”。

(一) 大巡真理会的“解冤”论

『大巡指针』称“解冤乃化解积怨之意”³⁾, 同时认为“我”应该主动地解冤。『大巡指针』又谈到: “须知结怨者和解怨者皆为我, 因此, 我先解怨, 对方所结之怨才自然化解。双方所结之怨得以化解, 才能实现相生。

1)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 『大巡指针』中文版(韩国: 大巡真理会出版部, 2010年7月版), 第4页。下引『大巡指针』同此版本。

2)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纂: 『大巡真理会要览』中文版(韩国: 大巡真理会出版部, 2010年7月版), 第5-6页。下引『大巡真理会要览』同此版本。

3) 『大巡指针』, 第12页。

须领悟此中奥意。”⁴⁾因为“我”是结冤的主体，所以也当为解冤之主体。只有“我”先解冤了，结冤的另一方才能解冤。相反，如果对方对“我”的怨恨消解了，“我”还不解冤，那这个冤当然还没有解。所以作为结冤、解冤者的主体——“我”，应当先解冤，才有可能解冤。

(二) 大巡真理会的“报恩”论

一般所谓的“恩”，就是指周边的人所给的恩惠，从广义上说，也包括天地所给予的生命及“福”与“禄”、国家与社会所给予的太平和安居、父母的养育之恩以及老师教导等。『大巡真理会要览』「训诲」谈到：“恩惠即人之给予我之恩泽，背指忘恩与背反之意，因此，所受恩德应予回报。生与寿、福与禄皆为天地之恩泽，故应以诚敬信立报恩天地之大义极尽人道；保命与安居为国家与社会之恩泽，故应以献身、侍奉之忠诚，为社会发展与共同福利极尽作国民之道理；出生与养育为父母之恩泽，故应以崇祖报本之大义极尽孝道；教导与成长为教师的恩泽，故应以奉教与布德极尽弟道；生活与禄爵为职业之恩泽，故应以忠实与勤勉极尽本职”⁵⁾。故而，欲“报恩”，首先应知晓周边人、天地、国家与社会、老师、职业等所给的恩惠，然后用相应恩德报答予恩之人，用“诚敬信立”报答天地之恩，用“献身、侍奉之忠诚”报答国家与社会之恩，用“极尽孝道”报答父母之恩，用“奉教与布德极尽弟道”报答老师，用“忠实与勤勉极尽本职”报答职业之恩。

(三) 大巡真理会的“相生”论

所谓“相生”，即“诚利人”。『大巡指针』称：“须知解冤相生、报恩相生是‘勿积怨、诚利人’的真理”⁶⁾只有做到“诚利人，才能相生共赢。”⁷⁾

4) 『大巡指针』，第13页。

5) 『大巡真理会要览』，第18页。

“诚利人”中的“诚”指“真诚”；“利人”即给他人带来好处，让他人受益。在当今社会分工精细的情况下，更应强调团队的精诚合作，从而为团队及团队中的每一个成员带来利益。在『大巡真理会要览』具体讲到：“诚利人乃相生大道之基本原理，救济苍生之根本理念。故应为他人不辞辛劳，与人共事时须精诚合作，使自己成为协同生活中的一员。”⁸⁾

“相生”为“解冤”、及“报恩”之主要归宿，“解冤”、“报恩”的主要目的就是达到“相生”。仅仅解冤，则主体与周边人没有冤恨，但要长久的处于没有冤恨的境地，最有效的途径就是通过“利人”而达到“相生”。所谓“双方所结之怨得以化解，才能实现相生。须领悟此中奥意。”⁹⁾“报恩”的客观效果便是“相生”，只是出发点是感激并偿还他人给我的好处，是被动的。而“相生”的出发点给别人以好处，是主动的。这是“报恩”和“相生”的区别之处，但共同点都是客观上给他人带来了好处。另外“报恩”的范围似乎更广泛一点，不仅仅包括生活中的人，还包括国家、社会、天地、职业等。但其实将“相生”予以引申，在广度上也包括国家、社会、天地、职业和生活中的他者，而“相生”要达到的最终效果是“化民靖世”，“匡救天下”，“广济苍生。”¹⁰⁾

因此这种“相生”应该是全天下的无相克且和谐的相生。在大巡真理会中圣师大巡的真理就是：“以阴阳合德、神人调化、解冤相生大道之真理和神人依导之理法解冤，终天地公事于报恩。以此解冤报恩二原理，解积万古之所有冤郁，使世界变成无相克之道化乐园。”¹¹⁾而大巡真理会的宗旨也正是：“阴阳合德、神人调化、解冤相生、道通真境。”¹²⁾大巡真理会所信仰的是“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姜圣上帝”¹³⁾，而“雷声”则解释为“阴阳合德”，有生长万物的寓意。『大巡真理会』称：“雷声乃，天令、仁声。雷

6) 『大巡指针』，第12页。

7) 『大巡指针』，第21页。

8) 『大巡真理会要览』，第18页。

9) 『大巡指针』，第12页。

10) 『大巡指针』，第7页。

11) 『大巡真理会要览』，第4页。

12) 『大巡真理会要览』，第11页。

13) 『大巡真理会要览』，第2页。

由阴阳二气相遇而成。雷为声之体，声乃雷之用。雷声意含分天地，动静进退之变化升降天气与地气，使万物生长、生成变化、支配滋养。”¹⁴⁾

总的来说，“解冤相生”与“报恩相生”的思想，更多揭示的是人与人之间和谐生活的伦理准则。通过“解冤”和“报恩”两种处世方式基本上能够解决了人世生活中人与人之间相处的问题。同时“解冤”和“报恩”的处世方式落脚点在于“相生”上。“相生”即“诚利人”，而其最终要达到全天下的无相克、和谐的相生，即“化民靖世，在人间建设乐园，乃匡救天下、广济苍生之大义”¹⁵⁾的境地。

二、儒家的“解冤”、“报恩”及“生”的观念

(一) 儒家关于“解冤”的思想

在儒家看来，“冤”(怨)是由过分自私、自利的心态导致的，其实质是以自我为中心，其造成的结果表现为“枉屈”和“仇恨”。而儒家学说以“仁”为核心，强调仁者爱人，故作为君子不应有“冤”。正如孔子说：“放于利而行，多怨。”(『论语·里仁』)以个人私利为行动的准则，则易招致别人的怨恨。相反，孔子谈到：“不怨天，不尤人，下学而上达。”(『论语·宪问』)也就是强调，消除对上天和他人的怨恨，进而学习相关的社会知识，才能逐渐通达于天道。

孔子说：“躬自厚薄责于人，则远怨矣。”(『论语·卫灵公』)孟子也认为：“有人于此，其待我以横逆，则君子必自反也：我必不仁也，必无礼也，此物奚宜至哉？其自反而仁矣，自反而有礼矣，其横逆由是也，君子必自反也，我必不忠。自反而忠矣，其横逆由是也。”(『孟子·离娄下』)可见，儒

14) 『大巡真理会要览』，第3页。

15) 『大巡指针』，第7页。

家主要通过自我反省及“忠恕之道”的方式化解怨恨、横逆于无形之中。

从『论语』的记载来看，“忠恕之道”从积极的方面来说，要求“己欲立而立人，己欲达而达人”(『论语·雍也』)；从消极的方面来说，则要求“己所不欲，勿施于人。”(『论语·颜渊』)即以自己的良知为评判标准，自己想要实现的目标，也帮助别人实现；自己不想要别人怎样对待自己，也不强加于别人。这样以“人心”大致相同为前提，站在别人的立场上想问题、行事，自然便能理解别人，得到别人的认可和喜欢，于是也就能减少怨恨了。故而孔子认为：“出门如见大宾，使民如承大祭。己所不欲，勿施于人。在邦无怨，在家无怨。”(『论语·颜渊』)

但如果冤恨已经产生，儒家一般采取“以直报怨”的方式来处理冤恨。所谓“以直报怨”就是按自己的本心，尤其是国家法规、社会一般礼法来对待冤恨，该怎么处置，就怎么处置，不以自己的好恶来评判对待。有人问孔子：“以德报怨，何如？”子曰：“何以报德？以直报怨，以德报德。”(『论语·宪问』)孔子又说：“巧言、令色、足恭，左丘明耻之，丘亦耻之。匿怨而友其人，左丘明耻之，丘亦耻之。”(『论语·公冶长』)可见，孔子并不认同无原则地谅解恶人恶行。

儒家是一个以社会伦理为主的学派，关心国计民生，极为重视民怨问题。孔子谈到：“虞夏之道寡怨于民，殷周之道不胜其敝。”(『礼记·表记』)民怨的多少对一个政权稳固来说极为重要，而要解决好这一问题，就应当以民生为本，解除民众的怨恨，实现社会和谐和正义。

(二) 儒家关于“报恩”的思想

“恩”即恩惠，报恩即对他者给予的恩惠予以报答。儒家极为重视“知恩图报”的德行，而视“忘恩负义”为最可耻的行为之一。

在儒家看来，天、地、君(或国家)、亲、师是我们天然的应该感恩、报恩的对象。因为天地是生育万物人类的根本，它给予我们基本的生存环境和条件；祖宗是生命的来源，他给予我们生命；国家是治理的根本，他使

我们得以安居乐业；而老师是教育的根本，他使我们懂得仁、义、礼、智。所以他们是我们天然应感恩、报恩的对象。正如荀子认为：“礼有三本，天地者，生之本也；先祖者，类之本也；君师者，治之本也。无天地，恶生？无先祖，恶出？无君师，恶治？三者偏亡，焉无安人。故礼，上事天，下事地，尊先祖而隆君师，是礼之三本也。”（『荀子 礼论』）

不过，虽然这五者是我们天然应感恩、报恩的对象，但以“君臣”“父子”关系为关系为例，臣、子并非绝对无条件地服从君、父。孔子说：“君使臣以礼，臣事君以忠。”（『论语·八佾』）孟子认为：“君之视臣如手足，则臣视君如腹心；君之视臣如犬马，则臣视君如国人；君之视臣如土芥，则臣视君如寇仇。”（『孟子·离娄下』）在“从父”这一点上，孔子、孟子一般强调应遵从父亲，孔子称：“三年无改于父之道，可谓孝矣。”（『论语 学而』）『孟子 尽心上』谈到的“瞽瞍杀人”一例也是如此。

荀子则明确强调：“从道不从君，从义不从父。”（『荀子·子道』）不过，在“报恩”最主要的环节“养老”、“送终”上观点，先秦儒家宗师的观念是基本一致的。就是不仅要解决好老人们的生存问题，而且要尊敬老人，更重要的是合老人的心意，让老人们开心满意，当老人去世后要合礼的丧葬及合礼的祭祀。

至于“兄弟”、“夫妻”及“朋友”间的人伦关系，儒家认为在“仁”、“义”、“礼”的基础上，互抱恩情。笼统说来，“兄弟”间要“悌”，即兄弟间要互亲互敬；“夫妇”间要“敬”，即夫妇间要互敬互爱；“朋友”间要“信”，即朋友间要互信互进。这种相互间的尊敬相亲、敬重亲爱、信任促进，是一种平等的互馈恩惠，所以比起“天、地、君、亲、师”来说这种报恩感不太明显，但也并非不予强调。

（三）儒家关于“生”的思想

虽然“天道远，人道迩”（『左传』），但据『论语』记载，子贡也曾说：“夫

子之言性与天道，不可得而闻也。”(『论语·公冶长』)而实际上，儒家在“仁”、“义”、“礼”等思想的背后，更进而推究抽象的“天道”及“生”的终极依据。

孔子曾自称：“五十而知天命。”(『论语·为政』)又强调：“不知命，无以为君子也。”(『论语·尧曰』)反过来说，“小人不知天命而不畏也。”那么老天赋予我们的使命是什么呢？则当为“仁”。因为君子之所以是君子的原因就是怀有“仁”。上天之“仁”的具体表现即是“生”。孔子称：“天何言哉？四时行焉，百物生焉，天何言哉！”(『论语·阳货』)

帛书『要』记载：“夫子老而好『易』，居则在席，行则在橐。”¹⁶⁾这可以印证『史记』所载孔子晚年读『易』“韦编三绝”之事。那么孔子在玩究『易经』中有什么收获呢？实际上，孔子在『易经』中找到了“天道与人会通”的方式。¹⁷⁾这种方式的重要内容即是“天人合德”，即是“仁”与“生”。『周易口系辞传』中认为：“天地之大德曰生”“生生之谓易”，即大致反映了孔子或其后学的思想。

孔子之后，『中庸』又谈到：“唯天下至诚，为能尽其性，能尽其性，则能尽人之性，能尽人之性，则能尽物之性，能尽物之性，则可以赞天地之化育，可以赞天地之化育，则可以与天地参矣！”参赞天地化育的观念即发展了孔子关于“生”的思想。

孟子、荀子又都以“生”来阐述“仁”、“义”、“礼”等儒家“生育”大众的理论。孟子虽主张“舍生取义”，但却不忽视生养百姓之道，他认为：“养生丧死无憾，王道之始也。”(『孟子 梁惠王上』)荀子也说，圣人“其行曲治，其养曲适，其生不伤，夫是之谓知天。”(『荀子·天论』)可见“生”既是儒家理论的基本精神，也是儒家实践所追求的基本目标。

16) [日]池田知久,『帛书〈要〉释文』,载刘大钧 主编,『出土易学文献』4(上海:上海科学技术文献出版社,2010),p.1546.

17) 赵法生,『孔子“晚而喜易”与其晚年思想的变化』,『哲学研究』(北京:哲学研究杂志编辑部,2012年第2期),pp.39-46.

三、结语

通过上述分析我们可以发现，大巡真理会在“相生”这个核心观念下，强调遵循“解冤”、“报恩”两种处理人际关系的基本方式，以达到和谐幸福生活的目标。而两千多年前，孔子、孟子等儒家思想家也以“生”、“仁”为核心观念提出“义”、“礼”等一系列修身治世方略，强调君子应该具备生养万物的大德、应该具有爱人的基本情操，应当在仁义之德性下不生怨恨，时时处处怀有感恩报恩的心。这些都是两者基本精神的共同之处。

但具体而言，就“解冤”“报恩”如何操作而言，儒家以因地因时创制了具体的礼制以具体实行，其实施往往有赖于政治的支持；而大巡真理会则以专门的教职人员为精神导师，指导大众按其真理生活，其实施具有宗教组织上的保证。再者，大巡真理会直接以“解冤相生”、“报恩相生”为主要处世理论，针对时弊，言简意赅，容易理解。在“生”的理论上，大巡真理会以圣师姜甌山所宣圣谕为真理绝对服从，这样更多一层宗教的神圣性和超越性。而儒家以抽象的“天道”为终极依据，按“天道”之性——“生”来从事，更侧重于理性而较少信仰维度。

【參考文獻】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 『典經』, 韓國: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 『大巡指針』, 韓國: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 『大巡真理會要覽』, 韓國: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 [清]阮元校刻, 『十三經注疏』, 北京: 中華書局, 1980年版。
- [宋]朱熹, 『四書章句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年版。
- 黃壽祺、張善文, 『周易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年版。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Grievance Resolution, Gratitude and the Perspective of Mutual Beneficence in Daesoonjinrihoe and Confucianism

Yang Zilu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of Southwest university

Grievance resolution, gratitude and mutual beneficence are not only an essential dogma of Daesoonjinrihoe but also a major issue which Chinese Confucian scholars have been concerned about.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mpares the perspectives of grievance resolution, gratitude, mutual beneficence based on basic scriptures of Daesoonjinrihoe and ancient Chinese Confucianism. With nurture and benevolence as core thoughts, the ways of ruling the world in righteousness and proprietie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of Daesoonjinrihoe and Confucianism. The Heavenly Way, which is rather an abstract conception, is perceived as a Confucianism ultimate ground. Because Confucianism does what is right for nurture, embracing rationality, the religious aspects are not clearly defined, it is the difference between Daesoonjinrihoe and Chinese Confucianism. In this regard, this study compar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ulture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key words : Daesoonjinrihoe, Confucianism, Grievance resolution,
Gratitude, Mutual beneficence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7월 24일~25일

◎ 계 재 확 정 일 : 2015년 5월 21일